

## 10월 정기회의 결과

- 일시 : 2022.10.04(화) 18:00
- 장소 : (사협)다가치포럼 교육장
- 참석자(13명) : 강태신 고영완 박기호 박정락 빈원호 안계근 이양희 이종섭 임동호 임주환  
조성주 정영수 한두섭
- 주요 회의내용 : ① 신용상담사회 주요 현안 정보공유, ② 현안별 운영위(09.26 오프라인,  
09.27 온라인) 의결 사항 공지, ③ 당면문제 토의 등

### 1. 「신용플러스」 기관참여 진행 상황

- 09.20 상담사 참여희망자 접수 마감, 09.22 신복위 앞 기관참여신청서 제출  
— 신용상담사회 회원 중 **16명** 참여 신청
- 09.28 밴드 내에 신용플러스 참여자 전용 **비공개 채팅방(「신용플러스 상담사」)** 개설  
— 채팅방은 참여자들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·안내하고 참여자 간 정보를  
공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창구로 활용 예정

#### 「신용플러스」 관련 운영위 결정 사항

- PM : **상담위원장이 PM**으로서 전체 사업을 관리(상담사 등록·삭제·추가, 상담 신청 접수  
시 상담사 배정 등)  
— 다만, 현 상담위원장은 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빈원호 부회장이 PM을  
대행한 후 2022.12.26. 정기총회에서 선임될 신임 상담위원장과 인계·인수
- 2023년 이후 상담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수배분 비율  
— 운영위 의결로 **상담사 70%, 협회 20%, PM 10%**로 잠정(의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10명  
중 9명 표결, 9명 동의)  
— 향후 1년간 PM의 실제 업무량의 과다·과소·적정을 평가하여 2023년 말에 배분 비율  
재논의

### 2. 신용상담사 교재 판매 및 인터넷 강의 수입의 처분

- 2021.11.24. 운영위가 의결한 배분 비율에 따라 처분(2023년 이후에도 동일)  
— 교재 판매 : 집필자 55%(전년 대비 -5%포인트), 협회 30%(전년 대비 +5%포인트), PM  
15%(전년과 동일)  
— 인터넷 강의 : 강사 70%(전년 대비 -5%포인트), 협회 30%(전년 대비 +5%포인트)

#### 교재 수입 처분 관련 운영위 결정 사항

- 신용상담사 교재 수입 중 일부를 **사회연대은행에 후원하는 안** 제시 및 찬반 표결  
— 제안 : 2022년 이후 교재 수입 중 **협회 귀속 증가분(+5%포인트) 해당 금액\***을  
**사회연대은행에 기관 후원**(다만, 향후 교재 수입을 포함한 신용상담사회 매출이

증가하더라도 후원 총액은 100만 원 이내로 제한)

\*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**20만 원~25만 원**으로 추정

- 운영위에 부의한 결과, 의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10명 중 9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**8명 동의**, 1명 부동의로 **제안 통과**

⇒ 2022년 정기총회(12.26) 이전에 수입액 정산·배분 후 **연내 후원금 확정·집행** 예정

### 3. 2022년 정기총회 준비

#### 정기총회 관련 운영위 결정 사항

- 준비위원회(위원장: 빈원호 부회장)가 총회 준비 총괄
  - 준비위원 지명, 총회 장소 섭외, 총회 의사 정리 등
  - 준비위원장은 총회 당일 일부 의사에 대해 임시 총회의장 역할 수행

### 4. 당면문제 토의

#### (1) 차기 회장 선출

- 차기 후장 추천과 관련하여 현 회장의 연임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관한 찬반 토론
  - 연임 찬성 의견 : 2021~2022년 중 코로나로 현 회장의 활동 제약, 신용플러스 사업 정착 필요, 사단법인 추진의 연속성 유지 필요 등
  - 연임 반대 의견 : 2018년 정기총회 시 묵시적으로 합의한 단임 원칙 위배, 연임 시 대외적으로 협회가 노쇠화하는 걸로 비칠 우려(협회 대표자의 연령 상승) 등
- ⇒ 참석자 의견 수렴 결과, 연임 의견이 다소 우세. 다만 **회장 선임은 총회 결정 사항**으로, 월례 회의에서 정할 사안이 아님에 유의

#### (2) 협회 홈페이지 정상화

- 그동안 주로 밴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를 방치한 결과 협회의 대외적 온라인 창구로서 기능 상실
  - 신용플러스 기관참여와 관련하여 신복위에서 협회 홈페이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대표자 개인 메일로 공문을 주고받아야 하는 등 대외공신력 문제 발생
  - 협회에 관심이 있거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(신용상담사 신규 합격자 포함)가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협회 가입을 안내할 담당자가 없음
  -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밴드가 있으나, 밴드 회원의 초대를 받지 않는 이상 외부인사가 밴드를 통해 회원가입 의사를 밝힐 방법이 없음
- ⇒ **당면 최우선 과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관리회사와 접촉하여 홈페이지를 되살릴 방법을 찾기로 함(사무국장)**

#### (3) 각종 소요 비용 조달을 위한 회비 도입

- 당장 홈페이지 복구부터 비용이 들 것이므로 우선 보유 회비를 동원하되, 그래도 부족 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의견 제시
- 1) 신용상담사 교재 판매 및 인터넷 강의 수입을 집필자·강사에게 배분하는 대신 홈페이지 복구에 투입하자는 의견
  - 일과 보수를 연계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, 집필진과 강사가 홈페이지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

- 2> 홈페이지 복구가 최우선과제이므로, 사회연대은행 후원을 보류해서라도 소요 비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 
→ 사회연대은행 후원 문제는 연초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으로, 운영위가 의결한 지 1주일 만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
- 3> 협회 운영방식을 **회비제로 전환**하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소요 비용을 조달하자는 의견  
→ (i) 회비로 모임을 유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의견,  
(ii) 지금까지는 협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회비를 받을 명분이 약했으나, 앞으로 신용플러스 참여, 사단법인화 등 활동 영역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회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 제시  
⇒ 회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나, 회비제는 **협회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경**이므로 여러 회원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(11월 정기회의 토론 주제로 고려)